



통증 덜한 '원형자동봉합기 수술' 명성

대장항문부분 대상 구의료재단 구병원

구의료재단 구병원(병원장 구자일·사진)은 대장항문 전문분야 및 외과 수술 종합병원이다. '빠르고 확실한 수술만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가 슬로건이다. 구병원은 대장암, 치질, 탈장, 맹장, 담낭(쓸개), 염증성장질환(크론병), 변비, 변실금, 갑상샘암 수술전문병원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병원 전문의 28명 중 외과 전문의가 13명이다. 그중 대장항문 전문의는 11명이다. 구병원에서는 대장암, 치질, 치루 등 대장항문질환 수술만 한해 5000차례 이상 이뤄진다. 구병원은 올 들어 수술 8만 5000건을 돌파했다. 대장암(직장암) 수술은 1700건에 이른다. 지난 7월 중순에



는 대장암(직장암) 복강경 수술 1000건을 기록했다. 2007년 대장암 복강경 수술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구자일 원장은 "수술을 담당할 전문의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입원 환자를 위한 회진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함암치료까지 직접 하면서 환자와 주치의 간 신뢰를 높이고 있다"며 "구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암 발현 후 수술까지 2-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병원은 대장암 복강경수술 시연도 매년 하고 있다. 병원은 최신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원형자동봉합기(PPH)를 활용한 치질 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구병원만의 독특한 원형자동봉합기 수술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구 병원장은 "원형자동봉합기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통증이 10분의 1 수준"이라며 "치료 기간이 현저히 짧고, 재발할 확률도 낮다"고 설명했다. 구병원의 원형자동봉합기 수술법은 입소문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

려졌다. 이 때문에 구병원에는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은 물론 해외 의료진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타이완병원 등 11개 대만 의료기관에서 의사 16명이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구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대만과 싱가포르 국적의 대장항문 전문의는 43명에 이른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등의 의료진도 원형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치핵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구병원 연수를 기다리고 있다. 구병원은 위·대장 내시경을 하루 100명 이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연간 1만5000명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1500명에게는 암 전단계인 용종을 제거하는 점막하 절제술을 하고 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가 알려진 덕분에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구조련권, 동남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외과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해외 전문의도 찾는 '스포츠의학 메카'

어깨관절부분 대상 CM병원

CM병원(병원장 이상훈·사진)은 스포츠의학센터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종합병원이다. 일본 나고야 대학병원 전문의였던 고(故) 이범순 박사가 낙후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1949년 충무병원을 세웠다. 이 박사는 "정점에 선 의사만이 정직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며 "병원은 '의사의 실력과 능력'만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6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CM병원의 기본 철학이 되고 있다. CM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와 우수한 의료진을 필두로 관절센터와 어깨-팔꿈치 센터를 갖추고 있다. CM병원의 관절센터는 대



학병원을 포함해 국내에서 가장 큰 관절센터 중 하나다. 16명의 전문의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 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팀 팀닥터,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팀닥터, 프로야구팀 이랜드FC 수석 팀닥터,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 수석 팀닥터, 프로야구팀 기아타이거즈 수석 팀닥터 비롯한 의사들이 진료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슬관절(무릎) 전문의인 이상훈 서울대병원 교수가 관절센터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깨-팔꿈치 센터는 7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맡는 독보적인 관절 센터다. 전임의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 어깨-팔꿈치 센터에서 수련을 받는다. 국내 전임의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전문의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CM병원을 찾고 있다. 이상훈 원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깨-팔꿈치 환자 치료 경험과 수술 사례를 가진 전문의다. 그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거

쳐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병원에서 어깨-팔꿈치 및 스포츠의학 임상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에서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아시아에도 미국의 조브클리닉 같은 세계적 스포츠병원장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에 CM병원 3대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원장은 국내에 새로운 수술과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한국 스포츠의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CM병원의 어깨-팔꿈치 관절 센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규모가 큰 편"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센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도 이 원장의 스포츠의학 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원장은 '야구메카니즘 분석을 위한 한국형 동작분석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한국스포츠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CM병원 측은 이 원장의 연구 결과가 한국 스포츠의학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환자 맞춤형 '비수술 척추치료' 정평

척추통증부분 대상 고도일병원

고도일병원(원장 고도일·사진)은 비수술 척추 치료 병원으로 9년 연속 '메디컬코리아 대상'에 선정됐다. 2001년 개원한 고도일병원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4개 분야에 전문의와 15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척추치료, 관절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만성피로클리닉 등 척추와 관절에서 비롯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각 분야 전문의가 직접 환자들에게 질환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주고 해당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1대1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병원의 강점이다. 고도일병원은 비수술 척추 치료가 생소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비수술 요법을 통해 척추 질환을 치료해왔다. 그 결과 3만여건을 웃도는 신경성형술을 집도해 아시아권 최다 시술 건수를 기록하는 등 비수술 척추 치료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도일병원의 대표 비수술 척추 치료 요법인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길이 40~50cm, 지름 1mm의 특수 카테터(길고 가는 관)를 척추관 내 디스크나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에 삽입해 유착방지효소제와 항염증제를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다. 신경성형술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 마취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위험을 덜 수 있다.

'풍선확장술'로 알려져 있는 '경막의 유착박리술'도 고도일병원의 대표적인 비수술 척추 치료 요법 중 하나다. 풍선확장술은 척추 주변의 뼈, 인대, 디스크 등이 퇴화하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증상인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시술법이다. 척추관협착 부위에 풍선을 주입한 뒤 확장해 협착 부위에 유착방지효소제와 항염증제를 주입하는 원리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한다. 고도일병원은 강화주사, 도수운동센터, 만성피로클리닉 등 다양한 비수술 통증 치료도 시행해왔다. 고도일병원의 비수술 치료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이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

아, 미국 등 20여개국에서 척추 질환 환자들이 찾고 있다. 고도일병원은 내원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쇄 공포증 환자들이 두려움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오픈형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부터 시술까지 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원스톱 케어 서비스, 바쁜 직장인을 위한 평일·주말 야간진료 서비스, 환자들의 민원을 듣기 위한 해피콜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허리튼튼 봉사단'을 조직해 용인노인요양원 방문진료, 청소년 봉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지원 등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최첨단 영상장비로 '고품질 건강검진'

영상의학부분 대상 리더스헬스케어

리더스헬스케어 영상의학과의원(원장 박영근·사진)은 '고급 건강검진의 대중화'를 목표로 2005년 3월 문을 열었다. 영상학과를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의 14명이 종합건강검진과 외래진료를 제공한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이다. 이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스헬스케어 영상의학과의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64채널 3D CT 촬영(MD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 대학병원급 첨단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과 간의 자기공명탄성(MRE) 검사도 할 수 있어 정확하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검진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맞춤형검진, 특정 부위나 특정 질환을 정밀하게 검진하는 특화검진, 가족의 병력에 기초한 추가 선택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분야의 종합검진을 2-4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혈액검사처분 분석이 필요한 검사와 조직검사를 빼면 모든 검진 결과를 즉석에서 알 수 있다. 5일 안에 종합결과를 안내하고 추적 검사일을 사전 안내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 처음으로 MRI 스크리닝을 단체종합검진에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영상학과 전문의인 박영근 원장의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구축한 것으로 특허(등록번호 10-1472709호)도 받았다. 리더스헬스케어 영상의학과의원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는 소화 내시경센터, 심장 CT 등을 검사하는 심혈관센터, MR 혈관조영술 등을 제공하는 뇌혈관센터, 유방클리닉, 갑상선클리닉, 치매클리닉 등 6개 부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소독지침에 맞게 내시경과 부속기구 소독, 관리하고 일회용 의료소모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하는 등 감염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고객의 건강을 추적 관리하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복잡한 대기순서를 원터치로 등록하는 근거리무선통신(RFID) 시스템, 전국 어디라도 원하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검진예약시스템도 도입했다. 2012년부터 진료 환경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도 개발해 컴퓨터 처방전달 시스템, 전자차트, 컴퓨터전화통합솔루션 등을 진료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정보복제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를 암호화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영근 원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을 위한 의료검진 대중화에 앞장서 보다 정확한 진단, 편안한 검진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